

열정과 연대... 2036 올림픽 유치 첫걸음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체육 영웅들의 참여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걸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현장평가에서는 도민 3,000여 명이 지역별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전북의 문화적 매력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PT 도시사'로 불리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사전 브리핑 발표자로 나서며, 현장평가 일정을 모두 함께하는 등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도민들은 현장평가단이 방문한 주요 시설마다 환영 퍼포먼스와 응원으로 올림픽 유치 염원을 전했다.

지난 6일 새만금 33센터에서는 500여 명의 주민이 응원 타올과 환영 깃발을 흔들며 평가위원들을 맞이했고,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인 전북 출신 체육 영웅과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올림픽 상징 목도리를 걸어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군산CC에서는 주민 900여명의 환영 인파와 함께 가야금·대금·해금 3중주 공연이 펼쳐졌으며, 전주 월드컵경기장(7일)에서는 노상놀이 공연과 500여 명의 환영 인파가 함께했다.

완주 종합스포츠타운에서는 취타대 퍼레이드와 700여 명의 열띤 응원이 이어졌으며,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와 600여 명의 주민이 태권도 시범과 응원으로 평가위원들에게 감동적인 인상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직접 PT 발표로 나서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을 유치했던 만큼, 이번에도 올림픽 유치를 성공할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관영 지사는 사전

6~7일 진행 현장평가서 도민 3000여명 환영 행사 다채도, 지속 가능성 등으로 최적의 개최지로서 강점 부각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 위한 충분한 역량·가능성 입증

브리핑을 통해 전북민의 차별화된 △지방도시 연대 △K-컬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 유치 비전과 당위성, 레거시 기대효과, 도민의 염원을 강조했다.

전북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비전으로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을 설정하고, 천년고도 전북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조화를 이뤄 세계를 맞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지방도시 연대 전략은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올림픽 아젠다 2020'의 핵심 전략인 비용효율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올림픽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장은 기존 시설(22개소)과 임시 시설(11개소)의 활용률을 극대화해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인 전북은 친환경 '그린 올림픽'을 목표로 자원 순환과 녹색 소비, 무공해 수송 체계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차가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현장평가를 통해 전북지치도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남은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2036 하계올림픽을 전북지치도에서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7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현장평가단이 전주월드컵경기장 등에 도착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많은 도민들이 피켓을 흔들며 평가단을 환영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환경·산림 특례

지속가능 발전 견인한다

산림복지지구·자연휴양림 지정 등 6개 사업 시동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환경영향평가 등 추진

전북지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을 기반으로 환경·산림 분야 6개 특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이양과 환경영향평가 특례 시행 등 독자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해지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산림 분야 특례는 △산간리빙 등 적용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순창 용골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용골산은 기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있어 숲속야영장, 치유센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산림복지시설을 집적화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산림복지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 이양 또한 전주 도심 지방정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개발에 힘을 실어준다. 도는 산림문화, 휴양, 복지 특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지치도는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와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연계한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친환경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도립·군립공원은 매년 600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할 만큼 풍부한 경관과 생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와 관광 개발 등이 제한돼 지역상권 침체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과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2개소가 지정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해당 공원지역을 관광, 힐링, 체험시설을 연계한 복합형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분야 특례로는 정읍시가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다른 시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내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되며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4개 지구·단지 내 사업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역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금현 전북지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는 특례가 본격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시군과 협력을 통해 해당 특례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한남동 ‘키세스 시위대’, 내란 시대 어둠 밝혔다”

민중 전북도당 “내란 수괴 지키는 국힘은 공당으로 자격 없어...尹 체포 완료, 민생경제 복구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은 7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 지키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체포를 완료하고 추락한 민생경제를 복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가 경호처와 국민의힘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경호처의 불법적 사법 방해와 최상목 권한 대행의 침묵·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모든 행위가 내란에 가담·동조하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공수처가 확인했듯이, 현재 윤석열 내란 수사의 지휘 책임은 12·3 비상계엄 공소수사본부에 있다"며, "공소수사본부는 국민의힘과 경호처 등 윤석열 내란 잔당의 발호를 진압해 내란 망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행법' 윤석열 체포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동의한 당 대표를 쫓아낸 데 이어, 윤석열 체포에 항의하며 내란 수괴의 관저 수호에 나서으로써 자신들이 윤석열 내란의 동조자이자 정당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집단임을 국민 앞에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권을 대의·대변하는 공당으로의 자격과 기능을 상실했다"며 "국민의힘의 존속은 국헌을 유린한 내란 행위의 연장선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해 우리 정치를 불행으로 몰고갈 것이다"고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인 김대중 대통령을 팔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 내란에 동조한 전복 정치인들은 더는 전북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체포 무산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가운데, 우리는 지난 주말 한남동 거리에서 이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목

격했다"며, "대실주의보가 내려진 엄동설한 속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은 하얀 눈을 맞으며 은박 담요를 휘감은 채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고 말하며 "윤석열이 파과한 민주주의가 그러나, 그렇게 무너질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한남동 '키세스 시위대'의 헌신적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전북도민과 함께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심판해 '키세스 시위대'의 전율을 현실로 이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공관에서 5시간여의 체포를 위한 경호처와의 밀고 밀치는 실랑이 끝에 체포에 실패해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를 하지 못하고 체포에 실패한 채 영장기간이 지나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바 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새해 첫 의정활동 돌입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사진)가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논의하고 △남원시 민생안정금 지원 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과 △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3건의 의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전에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1월 8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태 의장은 개회식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민생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의원 모두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의회, 14일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오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71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7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제11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초청음악회

• 일시: 2025. 1. 9~10. (목~금)
 •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 주최: 전주매일신문
 •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스키협회
 •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 참가문의: 063-288-9700(전주매일신문 본사)

 사회자 송미령	 명창 김민숙	 색소피니스트 박보성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송난영	 첼리스트 김인하